배터리 윤의 Battery® insigh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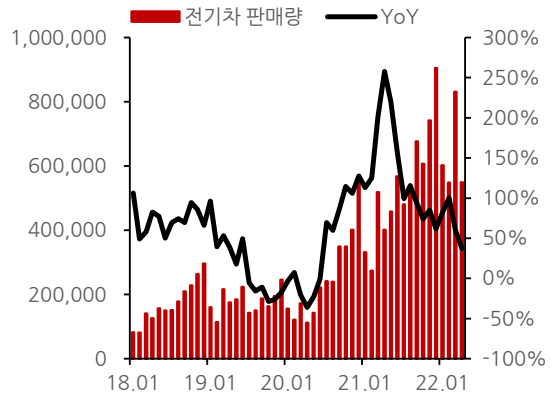
SK증권

2차전지: 윤혁진, 김도현(R.A) 3773-9025

PHEV(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V)는 더 이상 친환경차가 아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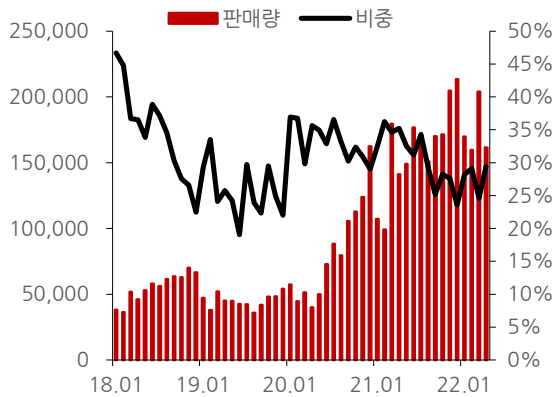
- **친환경차의 한 축인 PHEV: 1Q22 PHEV 판매량은 53.4만대(+38.4% YoY) 기록**
  1Q22 글로벌 EV(BEV+PHEV) 판매량은 198만대. 그 중 PHEV 비중 27.0% 기록
  지역별로 유럽 41.1%, 중국 21.1%, 미국 19.7% 수준으로 유럽지역이 가장 높은 비중 차지
- **EU를 중심으로 PHEV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 확대**
  PHEV 사용자들 중 많은 수가 전기차처럼 충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연기관차 처럼 주유하며 사용
  PHEV의 순수 전기 주행거리 비중은 45 ~ 49% 수준, 예측치인 70 ~ 85%의 절반 수준
  상업용 PHEV의 경우 순수 전기 주행거리 비중이 11 ~ 15%로 탄소배출량 역시 175 ~ 195g/km
  이에 따라, EU를 중심으로 PHEV 및 HEV에 대한 친환경차 제외 움직임 확대
 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대상에 PHEV 및 HEV(하이브리드) 추가, 2025년부터 PHEV 대상 탄소배출량 테스트 방식 강화 계획
  1) 프랑스: 2023년부터 HEV 및 PHEV 법인차량세 감면 규정 폐지
  2) 독일: PHEV 순수 전기 주행거리 기준 강화 계획
  국내의 경우에도 2025년부터 HEV 및 PHEV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할 계획
- **PHEV 보조금 축소 및 친환경차 정책 제외로 배터리 용량이 2배 이상 큰 BEV 판매량 확대 전망**
  글로벌 친환경 정책 강화에 따라 PHEV와 HEV의 인식 변화, 정책 지원 중단에 따른 BEV 수혜 전망
  정책 변화에 맞춰 현재 27% 수준인 PHEV 및 HEV 비중 역시 축소 예상되며, BEV 수요 확대 전망

글로벌 전기차(PHEV+EV) 판매량 (단위: 대, %)



자료: 산업자료, SK증권

글로벌 PHEV 판매량 및 비중(PHEV+EV 중)



자료: 산업자료, SK증권

Compliance Notice

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
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..
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

SK 증권